

해석학적 번역이론과 텍스트 기능 *

김 효 중
(대구가톨릭대)

1. 머리말

번역에 관한 문제는 개별어의 의미와 그 대비적 비교에서 시작되는데, 어장 이론과 구조의미론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든 개별어의 의미는 대체로 상호간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¹⁾ 번역은 적어도 원어텍스트가 의미한 모든 것을 역어의 표현수단을 통해서 재현해야 하지만 이것은 이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번역은 언어기호의 단순한 전환이 아니고 언어기호라는 형식(표현수단)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신, 세계관,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역동적이고 고유한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민족이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교비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1) 번역의 문제는 개별어 사이의 의미 차이 즉 개별어 사이의 현실성의 상이한 구성에서 비롯된다.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형식으로 바꾸어 재생하는 창조적이고 예술적 행위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현상이 아니고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상응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지닌 복합적, 다차원적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번역은 번역자의 주관적 선택의 문제이고 이 주관적 선택의 기준은 번역자의 세계관 즉 사회-문화적 배경이다.(김효중 5-6)

번역은 목적이나 전체적 조건 아래에서 유효한 역동적 행위이므로 그 최적성은 커뮤니케이션 관련자, 커뮤니케이션 상황, 텍스트 종류, 역사적 시기와 번역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별어 의미의 상이한 현실 구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점은 번역이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구심점은 항상 어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언어학의 화용론적 전환기 이후 번역이론에서 단어는 번역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지됨으로써 개별어의 체계 내에서 의미차원(랑그)이 아니고 텍스트의의(빠롤)가 번역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번역자의 임무는 역어의 표현수단을 통해서 등가의 체계 의미보다는 등가의 지시와 의의(Sinn)를 재생하는 데 있다. 번역의 핵심적 문제는 결국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미내용을 역어의 문체론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텍스트만이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의의는 텍스트 내적인 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텍스트 외적 요인의 도움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의 모든 문제는 이러한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야기되고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번역학계의 동향을 보면, 아직 이론적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본고는 텍스트이론 정립 이후 관심을 가지게 된 해석학적 번역이론의 규명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필자는 본고의 집필과정에서 텍스트기능과 해석학적 번역이론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으므로 이와 같은 본고의 특성상 이론적 서술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하는 만큼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간략히 예문을 들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텍스트이론의 정립

1970년경부터 언어학은 C-패러다임(paradigm)에서 P-패러다임(paradigm)²⁾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체계언어학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언표의 상황, 기능 및 언어행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했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적-화용론적 전환기에 선구자 역할을 한 학자로는 언행과 행위를 언어유희의 개념에 포함시킨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³⁾과 러시아의 형식주의자들을 들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적-화용론적 전환과 관련되는 언어이론은 언어학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 및 학문적, 기술적 혁명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임무에서 비롯되었다.

화용론의 등장과 더불어 언어학의 중심과제는 언어체계의 내적 특성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빠를로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자연어의 기능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은 언어기호 체계가 그 자체의 목적을 지니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해서 규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을 통해서만 규명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텍스트언어학, 화행론, 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 등의 빠를 중심의 새로운 언어이론이 정립되었다(Helbig 13)⁴⁾ 이러한 언어이론의 공통성은 언어가 자율적 현상이 아니고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학제간 연구대상이라는 가설에 기초한다는 데 있다.

빠를 중심의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이질성이 강조된다. 언어기호 체계는 실제로 체계의 체계 즉 동일한 종류의 체계가 통합된 것인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
- 2) C-패러다임은 촘스키(N. Chomsky)와 그 이전의 언어학을, P-패러다임은 촘스키 이후의 화용론적 언어학을 지칭한다.
 - 3) 비트겐슈타인(122-132)은 자신이 직접 만든 수많은 언어상황에 관한 예문들을 가지고 언어개념을 규정하고 “일상언어와 그 규칙”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라고 했고 언표의 구체적 사용을 의미의 구성요인으로 간주했다.
 - 4) 이와 같은 새로운 언어이론은 모두 문법이론을 토대로 기술된 통일성에 의해서 사회적,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적, 인식적 행위 안에서 규정되는 것으로 매우 복잡적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대상의 한 단면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문법론과 서로 연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사회-문화적, 지역적, 상황적 요인 등에 의해서 실현된 추상적 언어단위의 상이한 변이형(자연어의 존재형식)이 강조된다. 이러한 변이형간의 내적 연관관계는 그것들이 개별적 부분체계 내에서 공유하는 공통성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개별적 변이형(어휘, 의미, 음운) 모두는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사용방법으로서 사회 계층적으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구분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부분적이지만 어휘 부분체계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며 또 한편으로 이데올로기와 연관된다.(Suchsland 201)

언어의 변이, 차별성과 이질성은 언어가 지닌 사회성의 본질적 요인에 속한다. 동질의 언어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적이거나 개인적인 동시에 우연적이 아닌 차별성(상이한 어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차별성은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속하고 화자의 사회적 신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가치체계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언어적 차별화가 특성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행동하는 인간과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떻게 언어적 차별화와 행위의 사회적 조건이 명확하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이러한 연관관계는 단순히 언어와 사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정하거나, 사회언어학의 초기단계에서와 같이 언어와 사회영역에서 수집된 자료 사이의 단순한 상관관계나 인과 및 반사관계의 가정을 통해서 설명될 수도 없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사회와 문화의 불가분성과 그 상호작용에서는 물론이고 인간의 행동에서 결정적 중재역할을 하는 연결고리로서 인간을 가정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언어의 차별성은 행위조건 of 변형으로 취급된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언어의 차별화는 사회-문화적, 상황적 차별화를 직접 반영하지는 않고 이것과 연관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정한 행위조건을 모델화한다.(Hartung/Schönfeld 26-28)⁵⁾

5) 언어적 차별화 즉 변이형은 (1) 지역적 변이형(방언, 일상어), (2) 사회적 변이형(사회방언), (3) 상황적 변이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적 및 사회적 변이형은 화자집단에 의해서 구별되지만 서로 엄격하게 분리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방언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고 지역방언은 - 사회적으로 가치평가 된다면 - 사회방언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상황적 변이형은 서로 상이한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동일한 화자집단의 행위와 연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상황적 변이형은 부분적으로 다른 모델 즉 기능적 문체론 또는 변형목록(Register-Variation)의

1990년 이후 언어 외적 요인인 언어의 사회적 기능 즉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텍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은 고립된 단어 또는 문장이 아니고 텍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텍스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⁶⁾ 텍스트언어학의 등장과 더불어 번역가능성에 관한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Dressler 61), 코스류(Coseriu 26)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번역이론은 본래 텍스트언어학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텍스트기능을 토대로 번역과 연관되는 대비적 텍스트언어학을 정립했다.

텍스트언어학은 1970년대 이후 구조주의언어학, 특히 프라그학과와 테마-레이마이론과 파이크(K. Pike)의 문법소이론에서 비롯되었으며, 여기에 문체론, 수사학, 기호학, 내용문법, 의존문법, 기능문법, 변형생성문법 등 다양한 언어이론이 통합되었다. 텍스트언어학이 문장경계를 초월하는 언어이론으로서 화용론적 요인을 수용하고 언어에 대한 학제간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텍스트언어학과 번역학의 연관성이 성립된다.⁷⁾ 텍스트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는 본래의 언어기호로서 언어의 현상학적 존재방식이며, 언어는 텍스트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기능한다. 즉 언어는 이미 정해진 의도나 목적과 언어 자체 의의(기능수행 능력)를 제공하는 기본단위에 의존한다.(Hartmann 15-17)

언어학의 커뮤니케이션 경향과 텍스트이론은 심리언어학적, 심리적, 철학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심리학자들 예를 들면, 레온테브(A. Leont'ev)의 행위개념에 의하면, 언어행위는 한층 더 광범위한 행위체계에 예측되고 통합되어 있으므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언

모델을 통해서 규명된다. 그러나 세 변이형 모두는 사회언어학적 차등과 이질적 문법에 의해서 설명된다.(Helbig 47)

- 6) 고대 그리스시대 수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텍스트에서는 문장의 경계를 초월한 언어의 규칙성이 강조되며 그 목적은 텍스트의 구성적 특성을 규정하고 텍스트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다.
- 7) 문법이론은 처음부터 소수이지만 본질적이고 확정된 이론에 의해서 발전되었는데, 텍스트언어학에는 이러한 통일적 중심이론이 없었으며 텍스트언어학이라는 집합개념에는 수사학, 문체론, 화행론 등 다수의 문장경계를 초월하여 문장 상호간 의존관계를 연구하는 최근의 동향과 전통적 언어학의 공통적 요구조건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는 연구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어기호를 생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복합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따라서 언어행위는 기호의 연속으로서의 물론 텍스트로서 인간행위와 관련해서 규명되어야 하므로(Isenberg 50-52) 언어는 행위의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언어체계를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예속시키고 모든 사회적 행위의 총체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통합시킴으로써 텍스트언어학은 부분적으로 화행론과 연계된다. 따라서 텍스트는 언어행위의 실현이기 때문에 텍스트기능은 발화수반행위로 기술될 수 있다.(Schmidt 50-52)⁸⁾

텍스트의 발화수반행위는 다만 완벽한 행위구조의 부분적 구성요인(언어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할 뿐인데, 행위구조에는 이외에도 텍스트해석에 관한 다른 결정적 요인 즉 상황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행위구조는 구체적 발화구조에서 직접 도출해 낼 수 없으므로 텍스트의 발화수반행위 구조개념은 문법적, 행위적 양태를 상호 연결하고 한편으로 그것들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이론과 화행론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으로 파악되나 엄밀한 의미에서 언표 내적 발화수반행위와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언표 내적인 것은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는 반면 행위의 주체자는 화자 자체이기 때문이다.(Helbig 156)

텍스트언어학의 발전 후기에 언어학의 커뮤니케이션적 성향은 언어적 실현에 제한된 텍스트개념의 변증법적 지양을 촉진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텍스트개념 자체 또한 지양되었다. 왜냐하면, 텍스트개념은 언어행위에, 언어행위는 다시 그보다 한층 더 포괄적 행위 연관관계에 통합되고 동시에 또한 여기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이다.(ibid. 157) 그러나 통일된 근본개념이나 이론의 부재로 텍스트언어학의 연구방법은 이질적이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 범주와 용어는 물론 문제제기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나타난다.(Viehweger 370-371) 그 결과 텍스트생성과 텍스트이해의 과정은 상이하지만 통합적 지식체계(특히 언어지식), 일반상식, 백과사전적 지식, 목적과 조건에 관한 발화수반행위 지식, 메타커뮤니케이션적 지식, 대화원칙에 관한 지식 등의 도구화(조작화)로 파악되

8) 텍스트의 발화수반행위 기능성에 관해서 논의하고 발화수반행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가 이와 연관관계에 있다.

는 절차적 텍스트모델이 생성되었다.(Helbig 157-158)

현재 빠를 중심의 언어학에서 텍스트는 언표의 기본단위이며,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생성되므로 번역의 기본단위이다. 문장은 문법이라는 단순한 체계 내에서 정의되는 단위이지만 텍스트는 복합체계이며 그 체계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빠를 차원의 구체적 언어단위이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 단위이다. 문장은 문법성에 의존하지만 텍스트는 현실적 시간과 공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행위로서 실현되며, 그 의미는 발화상황,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발화자의 의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단순한 언표의 구성체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참여자가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인지적 구성체이다. 텍스트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기호의 한정된 연쇄체이므로 언어학적 방법으로 기술되고 설명되며 또한 분류될 수 있는 내적, 외적 표지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표지의 도움으로 텍스트특성을 대비언어학적으로 기술하고 실제 텍스트번역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 모델화가 시도되었다.

3. 해석학적 번역이론

번역이 언어로써 표현되는 상황과 연관되는 행위라면 번역자가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의식하고 자기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고찰하는지에 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와 번역의 관계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필연적으로 인간과 현실세계와의 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해석학과 관련을 갖게 된다. 최근 해석학적 번역이론은 번역자 자신의 관점에서 번역작업을 수행하는 번역이론의 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모델로 등장했다. 이러한 해석학적 번역모델에서는 텍스트의 구조, 번역과정 등 언어학적 요인은 문제시되지 않고 번역자가 텍스트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번역자의 텍스트에 관한 이해와 해석만이 중시된다.

해석학적 사고는 사물의 분석이 아닌 인간의 사고나 직관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언표는 조작화하거나 표준화할 수 없을 뿐더러 명확하지도 않으며, 그 내

용은 다만 직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학적 번역이론에서는 번역자의 언어적 창조성이 가장 중시되고 또한 텍스트에 대한 그 자신의 올바른 이해와 성찰이 요구된다. 이 경우 역어텍스트가 중시되고 번역과정이란 텍스트의 목적과 기능에 맞추어 원어텍스트에 좀더 접근하도록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일컫는다.(Stolze 192)

1970년대 후반부터 체계중심의 언어학은 화용론적 언어학으로 전환되고 번역학 역시 언어 외적 요인 즉 텍스트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텍스트에 기초를 둔 기능번역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회니히(Hönig)/쿠스마울(Kusmaul)(1984), 라이쓰(Reiss)/훼르메르(Vermeer)(1984), 홀쯔-맨테리((Holz-Mänttari)(1986), 노르트(Nord)(1988) 등이 있고 이들의 접근방법의 특성도 역시 해석학적 번역이론과 같이 역어텍스트 중심의 번역이라는 점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가 번역과정에서 전달하려는 텍스트의의는 텍스트와 번역자를 연결시키는 “사건 그 자체”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언어가 단지 커뮤니케이션 매체라면, 말해진 것(텍스트의 표층구조)과 의미된 것(전달내용) 사이의 구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번역자의 임무이다. 이것은 최적의 번역 즉 텍스트기능에 상응하는 번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체로 언어 외적 현실은 텍스트의 배후에 은닉되어 있고 의미된 것은 텍스트구조(말해진 것)와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해진 것은 사태관계를 암시할 뿐이므로 해석학적 번역이론에서는 실증주의적 성향을 띤 모든 번역이론은 무의미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드미랄⁹⁾

9) 라드미랄은 수백 년 동안 전통적 번역방법인 충실한 번역(직역)과 자유스러운 번역(의역)의 두 방법을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분석, 비판하고 번역이론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행위이론보다는 인식론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주장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론으로 평가되며, 종전의 원어 중심 번역을 지양하고 역어 중심 번역을 중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철학과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전개된 그의 이론에 의하면, 텍스트의 본질은 말로 창조된 세계이고 언어를 통해서 주관적 표상에 형성된 현실 외에는 어떤 다른 현실도 존재할 수 없으며 번역은 원어로 표현된 정신세계를 역어의 언어기호로 재현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언어학적(과학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번역작업은 방법론상으로 통제하거나 입증할 수 없으므로 사변적,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다거나 확고한 번역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Ladmiral 191-192)의 견해, 즉 번역시 말해진 것을 원어기호에서 분리시켜 역어에 상응하는 형태로 재언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의 주장은 정당성을 지닌다. 다만 텍스트의 개체성 때문에 번역자는 아무리 유사한 텍스트라도 비슷하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¹⁰⁾

해석학적 번역이론은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329)의 “전체가 개별적 사항으로부터 이해되는 것과 같이 개별적인 것도 오직 전체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은 초월적 전체의 의의단위(übersumative Sinneinheit)로서 텍스트가 언어단위인 동시에 또한 번역단위라는 최근 텍스트이론¹¹⁾과도 일치한다.

해석학적 번역모델에서는 텍스트이해가 번역의 전제조건이다. 가다머(H. Gadamer)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학적 현상을 담화모델에 의거하여 고찰할 것을 제안했다. 모든 텍스트는 독자에게 생소하므로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예비지식과 예견을 바탕으로 하여 대화를 통해서 점차 그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 물론 어떤 사태관계를 파악하려면 어떤 특정의 사전지식이 요구되며, 상호간 협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번역자는 전문적이고 문화적 인식에 관한 해석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 한편, 텍스트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고 주어진 사회-문화적 상황에 상응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번역은 번역자의 주관적 선택 문제이고 그 기준은 그의 세계관 즉 그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다. 언어사용자의 세계관 즉 어느 특정시대의 언어적 사고방식은 어장에 가장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어장은 어떤 문화공동체 구성원의 실세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¹²⁾ 이러한 사실에서 모든 언어(모국어)에는 언어적으로 규정된 중간세계(Zwischenwelt)¹³⁾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 10) 기존의 원어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역어텍스트에 충실하고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번역모델은 기능번역방법과 일치한다.
 - 11) 텍스트이론이란 구조주의적 텍스트언어학과는 달리 슈미트(Schmidt)가 제시한 화용론적 요인을 포함하는 확장된 텍스트언어학을 말한다.
 - 12) 언어비교에서 모든 언어의 어장은 서로 다르게 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동일한 어휘의 의미도 서로 정확한 대응관계에 있지 않다.
 - 13) 중간세계에 관한 이론은 바이스게르버(Weisgerber 54)의 내용문법의 중심적 개념이며, 여기에서 언어는 모국어를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언어공동체 구성원은 실세계를 그의 모국어에 의해서 정의된 정신적 중간세계에 의해서 이해하고 개념화한다.

텍스트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의 난해성은 텍스트 외적(언어 외적)요인을 언어학적으로 명확히 분석하고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텍스트의 언어 외적 요인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확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텍스트 생성자의 개인적 문제이다. 따라서 텍스트이해와 분석은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텍스트의 언어적 구조는 동질적일 필요가 없다.

위의 논의에서 텍스트 이해는 번역과정의 본질적 부분이지만 이러한 이해가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번역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텍스트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이론과 해석학과의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 접근방법을 방법론적으로 체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텍스트이해의 정도는 번역자의 이해능력과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에 의거한다.(Kussmaul 229) 즉 번역의 질은 번역자의 텍스트 이해능력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번역과 텍스트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석학적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의 구조나 기능, 번역과정보다는 번역자의 이해와 언어표현 능력이 중시된다.¹⁴⁾ 그리고 언어학은 또한 정밀과학이 아니고 인문학에 속하며 그 연구대상은 생명이 없는 언어구조가 아니고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사고방식은 객관적 분석보다는 인간의 직관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텍스트이론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텍스트특성을 고려한다면 텍스트이해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 방법을 정립할 수는 없으므로 해석학적 방법이 아직도 유효함을 알 수 있다.

- 1) 상황성: 텍스트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문화적 한계성을 지닌다. 즉 텍스트 이해는 오직 주어진 상황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며 텍스트가 생성된 상황을 정확히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 2) 초월적 전체성: 텍스트가 문법적 차원 즉 나열된 문장순으로 번역된다

14) 번역자의 번역능력이란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저자의 의도 및 텍스트기능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면, 그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거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전체적 텍스트의의는 언어기호가 가진 의미의 총화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비록 전체적 텍스트의의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도 부분의 총화가 그 전체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텍스트가 고유한 의의를 지닌 언어단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초월적 전체로서 복합적 언어기호이기 때문이다.(Stolze 31-32)

- 3) 개체성: 텍스트 특성 중에서 매우 중시되는 것은 전형적이고 반복적 구조가 아니고 그 개체성이다.¹⁵⁾ 텍스트 생성에는 화자와 청자 모두 함께 관여하며 모든 화자는 무한정의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텍스트가 그 의의를 지니게 된다면, 다른 모든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텍스트가 생성될 것이다.(Vermeer 2) 그러므로 유사한 문법과 구조적 형성 규칙을 지닌 텍스트가 언제나 동일한 텍스트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유사한 텍스트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개체성을 지닌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외적 현실은 언어라는 매체 내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 이러한 언어 외적인 것 그 자체는 비구조적인 전체이다. 그리고 언어의 선별적 기능과 특정요인의 선택 및 일반화하려는 주제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 생성자의 의도에 상응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언어 외적 요인만이 선택되어 텍스트에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요인은 사라진다. 따라서 텍스트는 상황과 화자 특유의 특성을 지닌다.

한편, 언어 외적 요인은 화자나 그의 언어공동체 구성원 특유의 어휘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요인은 의미영역에서는 특정한 의미상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특혜 결정과 의미적 선택은 텍스트에 개체적이고 특정의 구조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 특정의 개체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텍스트의 개체성은 상이한 텍스트 사이에 전혀 공통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물론 반복될 수 없는 개체적 내용을 가진 텍스트 내에는 불변하는 형식적 구성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의 불변성 역시 어느 한 텍스트 개체성의 영역을 넘어서 이 텍스트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변적 요인을 나타내는 다른 텍스트와 표면적으로 유사하게 만드는 특성을 지닌다.(Stolze 29-31)

물론 텍스트 이해는 텍스트 특성에 맞는 분석방법¹⁶⁾을 통해서 한층 더 명

15) 개체성의 개념은 어떤 텍스트가 지닌, 교체하거나 반복할 수 없는 유일한 특성을 의미한다.

료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판적 텍스트 분석은 원어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역어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텍스트의 해석학적 이해 없이 언어학적 범주의 분석을 통해서만 정확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스톨제(Stolze)가 번역과정에서 전체로서 텍스트의 해석학적 이해를 언어학적 범주의 도움으로 체계적 텍스트 분석과 연계시키려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텍스트 이해와 그 체계적 분석(예를 들면, 전체로서 텍스트를 처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의미론적, 통사론적 특성을 찾아내는 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텍스트의 초월적 전체성 때문에 부분적 내용의 축적을 통해서 또한 텍스트 전체의 의미 파악이 보장될 수는 없다.(Stolze 47-50) 그러나 텍스트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자들은 텍스트 분석에 의거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대화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 이해는 번역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번역의 질적 문제가 텍스트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언어적, 문화적 상황, 텍스트 생성자의 의도 등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결국 언어와 관련되며 텍스트 이해를 근간으로 역어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이다.

다음 예문의 번역에서 텍스트가 사회-문화의 언어화된 일부분이라는 사실과 해석학적 번역이론(넓은 의미에서 문화번역이론)의 정당성이 잘 드러난다.

예문 1 :

He sent his son to Eton(public school).

그는 자기 아들을 이튼(공립중학교)에 보냈다.

이러한 번역은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학적 차원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원문과 차별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한 “Eton”이라는 명칭이 문화권이 다른 한국의 독자들에게 그것이 영국인들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전해주지 못한다. 영국의 교육문화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public school”

16) 노르트(Nord 351)는 라스웰(Lasswell) 공식, 즉 의문사 who, what, whom, which, where, when, why를 사용한 거시언어학적 분석방법을 텍스트분석의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국 특유의 교육기관으로 많은 기본재산을 소유한 “사립 중학교”라는 사실과 “Eton school”이 영국 최고의 명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와 같이 텍스트는 주어진 상황에 귀속되는데 상황 그 자체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핵심적 사실을 위의 번역은 한국인 독자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문과 차별화된 번역만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영국 최고의 명문 사립중학교인 이튼에 보냈다.

이제 위와는 반대로 예문 2와 같은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문 2: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Too many rowers end up a boat on top of the hill.

위의 직역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것은 서양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을 영어와 독일어 및 불어로 번역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Viele Köche verderben den Brei.

Trop de cuisiniers gâtent la sauce.

위와 같은 예는 수없이 많지만 지면의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고의 의도는 이론의 개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위의 예시로 한정한다.

이렇듯이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는 단순히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의미는 개인의 수용과정을 통해서 밝혀진다. 텍스트언어학자들 역시 텍스트의 표면적 관찰자가 아니고 그들의 언어공동체 내에서 배운 모국어의 실력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해석학과 텍스트이론 사이의 관계는 번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번역자들은 텍스트에 표현된 것

에서 의미된 것을 추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해석학적 번역이론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어서 해석학적 번역모델에는 정확한 판단기준, 즉 과학적으로 확고한 입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방법을 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어학적 범주를 원용했다.(Stolze 196-206)¹⁷⁾ 스톨제는 번역자 자신의 텍스트 이해가 번역의 준비작업이라는 관점에서 텍스트 분석을 부정하고 텍스트 해석을 중시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녀가 실용텍스트, 학술텍스트 또는 문학텍스트 등 특정한 텍스트 형태에 고정시키지 않고 모든 텍스트 번역에 통용되는 유용한 언어학적 범주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이러한 언어학적 범주체계로서 1) 주제, 2) 의미론, 3) 어휘론, 4) 화용론, 5) 문체론을 제시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텍스트의 번역과정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텍스트에 따라 그 적용정도 역시 다르며 번역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기보다는 번역자가 주의해야 할 텍스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팍케(Paepcke)¹⁸⁾는 텍스트 중심의 해석학적 번역이론을 바탕으로 당해 텍스트의 번역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의했으나 자신의 견해를 일반이론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연구결과에서 그가 주장한 이론의 분석적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팍케는 “총체로서의 텍스트”를 번역단위로 간주하여 단어나 문장이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로서 텍스트의 “초월적인 총체적 의의단위”가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텍스트는 의의단위를 형성하는데, 그 내적 연관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며 큰 형식 내에서 소단위는 포괄적 텍스트의 테두리 내에서 사태관계가 결정되지만 보다 더 작은 형식 역시 자율성을 지닌다. 소단위는 언제나 “초월적인 총체적 전체성”과 연관관계에 있는 “전체로서의 일부”이므로 소단위와 대단위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흡수나 첨가가 아니다. 텍스트 정보는

17) 이러한 스톨제의 견해는 번역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스넬-혼비(Snell-Hornby)의 통합적 접근방법과 맥락을 같이한다.

18) 팍케는 1970년 이후 해석학적 번역이론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폈으나, 1986년에야 비로소 자신의 모든 개별적 연구논문을 모아 *Im Übersetzen leben - Übersetzen und Textvergleich*을 발간하였다.

언어기호 자체의 총화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텍스트 속에 내포된 언어요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텍스트의의이다. 즉 텍스트는 총체가 그 부분의 총화를 능가하는 “형태단위”로서 다수의 다른 요소와 기호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다차원성”을 지닌다. 따라서 텍스트의 일부만을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텍스트의의는 상황과 문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보나 기능만이 번역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자는 텍스트 요소를 다차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분석해야 하며, 텍스트에 나타나는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구조보다는 그 개체성을 중시해야 한다.

4. 맺음말

키케로(Cicero) 이래 이천 년 동안 번역작업은 전통적으로 직역과 의역이라는 양극화된 이분법적(단어 vs. 내용) 방법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팽배했던 1950년대부터 번역학은 라이프찌히학과 중심의 언어학적 번역이론 즉 객관적 등가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이 시기에는 문학작품은 언어사용의 규범에서 벗어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주로 실용텍스트 중심의 번역이론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언어사용의 규범에서 이탈한 언어가 일반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전통과 세계관이 담긴 문화적 요인 즉 민족 고유의 문화소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언어학적 접근방법이 올바른 번역방법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1970년대 이후 언어학의 화용론적 전환기에는 텍스트언어학이 번역학의 연구대상으로 부상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번역학에 문화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번역학은 원형이론에 바탕을 둔 전체적·형태적 원칙에 의거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했다. 1970년대까지 원어텍스트 중심의 언어학적 번역이론은 역어텍스트 기능 중심의 기능번역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 20여 년 동안 번역학자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언어학적 번역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문화 상호간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문화라는 개념이 번역학에 도입되면서 즉 언어의 본질이 밝혀지면서부터 전통적 번역방법과는 전혀 다른 해석학적 번역이론이 등장하였다.

어장이론에서 밝혀졌듯이 모든 언어는 서로 다른 개념체계와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은 언어간의 단순 비교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그 결과 해석학적 번역이론이 타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기능번역이론의 토대가 되는 문화 역시 여러 우연적, 이질적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능의 개념 역시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번역은 학제간 연구와 문화 상호간의 상대적 연관관계의 바탕 위에서만 해결될 문제이다.

참고문헌

- 김효중. 2002. 「문학작품 번역과 세계관」. 『비교문학』28집. 한국비교문학회. 5-6.
- Coseriu, E. 1988. "Falsche und richtige Fragestellungen in der Übersetzungstheorie," In Albrecht, J.(Hg.). *Energia und Ergon. Band I.* Tübingen: *Schriften von Eugenio Coseriu(1965-1987)*.
- Dressler, W. 1991. "Der Beitrag der Textlinguistik zur Übersetzungswissenschaften," In V. Kapp(Hg.). *Übersetzer und Dolmetscher.* Tübingen: Quelle & Meyer.
- Hartmann, P. 1971. "Texte als linguistisches Objekt," In J. Lyons(Hg.). *Beiträge zur Textlinguistik.* Hamburg.
- Hartung, W./Schonfeld, H. 1981. *Kommunikation und Sprachvariation.* Berlin.
- Helbig, G. 1986. *Entwicklung der Sprachwissenschaft seit 1970.* Leipzig.
- Hönig, H./Kußmaul, P. 1984. *Strategie der Übersetzung. Ein Lehr- und Arbeitsbuch. 4.* Tübingen.
- Horz-Mänttari, J. 1986. "Translatorisches Handeln - theoretisch fundierte Berufsprofile," In M. Snell-Hornby(Hg.). *Übersetzungswissenschaft. Eine Neuorientierung.* Tübingen.

- Isenberg, H. 1976. "Einige Grundbegriffe für eine linguistische Texttheorie,"
In *Probleme der Textgrammatik* I. Daneš. F./Viehweger, D. *Studia
grammatica* XI. Berlin.
- Ladmiral, J. 1993. "Sourciers et ciblites," In Holz-Mänttari/Nord, C.(Hg.).
Traducere Navem. Festschrift Katharina Reiss. Tempere.
- Nord, Ch. 1988. "Übersetzungshandwerk - Übersetzungskunst. Was bringt die
Translations theorie für das literarische Übersetzen," In *Lebende
Sprachen* 2.
- . 1999. "Textanalyse: pragmatisch/funktional," In *Handbuch
Translation*. Snell-Hornby M./Hönig, H.G./Kußmaul, P./Schmitt, P.
A.(Hg.). Tübingen: Quelle & Meyer.
- Paepcke, F. 1986. *Im Übersetzen leben - Übersetzen und Textvergleich*. Berger.
v. K./Speier. H.-M. Tübingen.
- Reiss, K./Vermeer, H. 1984.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Niemeyer.
- Schmidt, J. 1973. "Texttheorie/Pragmalinguistik," In P. Althaus/H. Henne/H.
Wiegand(Hg.).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 Band II.
Tübingen.
- Snell-Hornby, M. 1988. *Translation Studies - An Intergrated Approach*.
Amsterdam/Philadelphia.
- Stolze, R. 1994. *Übersetzungstheorien. Eine Einführung*. Tübingen.
- Suchsland, P. 1973. "Überlegungen zum Systemaspekte der Sprache," In
Linguistische Studien A/2. Berlin.
- Viehweger, D. 1983. "Semantik und Sprechakttheorie," In *Richtungen der
modernen Semantikforschung*. Motsch, W./Viehweger, D.(Hg.). Berlin.
- Weisgerber, L. 1971.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Düsseldorf.
- Wittgenstein, L. 1953.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D - E)*. Teil 1. Oxford: Blackwell.

[Abstract]

Hermeneutic Translation Theory and Text Function

Kim, Hyo Jo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fter the 1970's, a transitional period to pragmatism in linguistics, textual linguistics was used for translation studies. It was only during the late 1980's that the concept of culture was introduced into the translation studies. Since then, the translation studies saw dynamic developments which had its roots in holistic-gestalt principles from the prototype theory. These developments indicated the transition to the hermeneutic(functional) translation theory. This theory puts emphasis on translated texts rather than the original text.

The key matters of translation lie in the functional differences of words and expressions among the variety of cultures. In other words, connotations or cultural understanding of a word or expression differ from culture to culture. Each group of peopl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has their own way of seeing and understanding each environment. Thus, cultures of different characters are created accordingly. On the other hand, once a cultural tradition takes root, it starts to affect the way of thinking and behaviour of its members. Furthermore, language contains the cultural elements of the group of people who speak that language. In the light of this knowledge, we can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al differences of words and expressions aforementioned. The essence of a language is a culture.

For the last 20 or more years, the scholars of the translation studies have paid attention to cultures in their studies and have recognized that it was crucial to begin intercultural studies for the accurate translation. As was shown by the word field theory, each language has different systems of concepts and

values. To put it more simply, translation is a matter of culture, not a matter of transferring linguistic signs. This realization helped to make the hermeneutic translation theory seem valid to the scholars' eyes.

The author's opinion goes even beyond this. It is difficult to define what a function is in the functional(hermeneutic) translation theory, since the concept of culture on which the theory is based, is a complicated mixture of various elements that are both accidental and incoherent. Therefore, translation is a matter of inter-disciplinary and comparative-cultural studies. Consequently, hermeneutic translation theo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nslation theories.

K C I

▶Key Words: Kulturem, heterogeneous qualities of languages, communication, textual function, textual principle, text sense, hermeneutic translation theory